

家計要員의

家庭訪問에 의한 避妊普及效果

李 榮 勳*

1. 序 論

家族計劃 普及을 위한 制度的 혹은 方法論的 構想은 몇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餘年間 家族計劃要員은 우리나라의 家族計劃事業에 있어 核心的 役割을 담당하여 왔고 또 이들은 현재에도 區, 市保健所 및 邑, 面에 배치되어 家族計劃 普及의 幹線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效率的 活用은 家族計劃事業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方法으로 考慮되는 것이다.

一線要員의 活動이 家族計劃 實踐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研究는 Chen¹⁾, 邊²⁾, ASI Market Research Inc. (Korea)³⁾ 등의 研究에서 보는 例이다.

H. C. Chen의 研究는 기본적으로 臺灣에 있어 要員 特性 및 地域特性變數가 IUD 普及에 주는 影響을 分析內容으로 하였고 要員特性 및 地域特性值와 IUD 普及의 關係간에 現地活動方法을 媒介的 變數(Intervening Variables)로 사용한 橫斷面的 多變數分析(Cross-Sectional Multivariate Analysis)이었다.

邊의 研究에서는 家族計劃要員의 活動과 家族計劃實踐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主要 避妊法과 要員의 婦人接觸과의 關係를 설명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調查 및 分析 方法은 채용된 調查員에 의하여 家族計劃要員의 활동결과를 有配偶婦人을 면접조사함으로써 推定하는 方法이었고, 질문결과 가족계획 要員의 접촉에 의하여 避妊經驗이 있는 婦人에게 첫번째 채택, 두번째 채택 이상으로 분류하여 要員의 接觸頻度を 測定하는 것이었다.

ASI 마켓트 리써치 韓國支社의 연구는 1972년 한국의 家族計劃 啓蒙效果에 관한 조사 일환으로 최근 2년간 가족계획요원의 婦人接觸頻度 그리고 啓蒙과 관련되는 要員의 活動成果를 測定하기 위하여 고려된 내용이다.

以上과 같은 背景과 現實的 妥當性에 바탕을 두고 1974年 5~6월에 忠北 報恩郡을 對象地域으로 하여 「家族計劃 普及 極大化 方案 研究」⁴⁾를 위한 基礎調查가 실시되었다.

이 基礎調查의 目的은 이미 本誌 創刊號에 發表된 바 있지만 農村地域에서 避妊普及을 極大化

* 當院 研究員

- 1) H. C. Chen and Albert I. Hermalin,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Field Workers in the Taiwan IUD Program", *Taiwan Population Studies*, Working Paper No. 7, September 1970, pp. 2-27.
- 2) 邊時敏 外 3人, 家族計劃要員의 努力投入 및 그 效果測定에 관한 調查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4. 7.
- 3) ASI Market Research Inc. (Korea), *A Follow-up Study of the Family Planning Communic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September 1974.
- 4) 家族計劃研究院, 家族計劃論集 創刊號 Vol. 1, 1974, 12, pp.24-37(主要結果 收錄).

시킬 수 있는 수준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水準의 達成은 가능한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本稿는 이 基礎調査에서 밝혀진 內容 중 家族計劃 實踐을 원하는 婦人 또는 未實踐 중에 있는 婦人에서 家族計劃 普及 刺戟을 投與한 결과를 分析한 것이다. 家族計劃 普及 刺戟은 많겠지만 本 研究에서는 邑·面 家族計劃要員의 家庭訪問이 家族計劃 普及에 미친 效果가 分析되었다.

2. 資 料

1974年 5~6月 기간에 忠北 報恩郡 全家口의 약 1/10인 1,782家口에 대한 面接調査가 실시되었다. 이 調査를 통해 15~44歲 有配偶婦人의 家族計劃 實態가 파악되었고, 이들 婦人중 邑·面 家族計劃要員의 家庭訪問에 의한 避妊普及이 요구되는 對象이 선정되었다.

邑·面 家族計劃要員의 家庭訪問은 1974년 9월~11월의 3개월간 月 1回 지정된 婦人에게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고, 이 기간의 家族計劃要員의 家庭訪問 活動이 終結된 후 活動記錄은 모두 本院에 송부되었다.

그 節次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가. 基礎調査의 主要結果⁵⁾

基礎調査를 위한 標本家口는 1,786家口였고 이 중에서 15~44歲의 有配偶婦人數는 標本家口數의 69%인 1,238人이었다.

基礎調査 結果 全 有配偶婦人중의 家族計劃 現實踐者는 47%인 576人이었고, 中斷者는 16%의 197人, 未實踐者는 38%의 465人이었다.

家族計劃의 現實踐者, 中斷者, 未實踐者는 다시 이들의 將來 家族計劃 態度 如何에 따라 각각 몇 가지 group으로 다음과 같이 分類되었다.

現實踐者: 1) 現在의 피임방법을 將來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원하는 group(38.7%).

2) 現在의 피임방법을 將來에는 變更하여 사용하고자 원하는 group(4.4%).

3) 將來에는 피임을 中斷하고자 원하는 group(3.4%).

中斷者: 1) 將來 避妊을 再實踐하고자 원하는 group(5.8%).

2) 피임을 一時的으로 中斷한 group(妊娠中이거나 出產直後의 婦人) (3.7%).

3) 피임을 將來에도 계속하여 중단하고자 원하는 group(5.4%).

4) 永久不妊婦人 group(1.0%).

未實踐者: 1) 將來 피임을 希望하는 group(11.4%).

2) 피임을 일시적으로 非實踐하는 group(妊娠중이거나 出產直後의 婦人 9.7%).

3) 將來에도 계속 피임을 非實踐하고자 원하는 group(12.3%).

4) 永久不妊 婦人 group(4.2%).

여기서 기초조사시 15~44歲의 대상 유배우부인 1,238人중 永久不妊婦人 5%(중단자와 미실천자 각각의 4)항에 해당)와 一時的 不妊婦人 13%(中斷者와 未實踐者 각각의 2)항에 해당)의 合計 18%를 제외한 82%는 妊娠能力이 있다. 이 중에서 家族計劃의 普及이 可能한 婦人은 家族計劃을 원하는 婦人으로 고려되었다.

家族計劃을 원하는 婦人은 現實踐者 중 1), 2)항과 中斷者의 1)항 그리고 未實踐者의 1)항에 해당하는 婦人이다. 이들의 合計가 60%水準에 달하였다. 이는 현재 실천하고 있거나 將來(1974年內 혹은 6個月 以內) 家族計劃을 實踐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潜在的 避妊實踐婦人으로 간주

5) 上揭書, 同面.

된다.

이러한 避妊實踐의 潛在的 水準은 全國의 標本調查에서도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1973年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生力調查⁶⁾에 의하면 有配偶 婦人의 62%가 追加子女를 원치 않고 있다. 追加子女를 원치 않는 아들 婦人 62% 중 現實者가 30%, 不妊婦人이 11%, 따라서 可妊婦人으로서 未實踐者는 21%였다. 그리고 追加子女를 원하는 婦人 38%중 現實者가 6%였고, 非實踐者가 32%였다.

여기서 家族計劃 實踐이 가능한 수준은 現實者 36%와 追加子女를 원치 않으면서 妊娠能力이 있고 避妊을 實踐치 않고 있는 21%의 有配偶婦人으로 고려되며, 이들의 合計가 57%가 되고 있다.

報恩 地域의 避妊實踐의 潛在的 婦人 60%는 1973年의 전국 수준 57%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 연구에서 이를 家族計劃 實踐 最大 期待上限 水準으로 고려하였다.

나. 避妊普及 對象婦人

家族計劃 普及對象은 基礎調查 結果에 따라서 將來 家族計劃을 원하는 婦人, 또는 現實實踐의 避妊方法을 變更하여 사용하고자 원하는 婦人을 1次的 對象으로 하였고, 出産直後나 妊娠중인 婦人과 같은 一時的 避妊 非實踐者를 2次 普及對象, 장래에도 계속하여 中斷 혹은 非實踐을 원하는 婦人을 3次 普及對象으로 하였다.⁷⁾

그리고 基礎調查時 對象婦人중 現實者로서 장래에도 계속하여 동일 避妊方法을 사용하고자 원하는 婦人과 永久不妊 婦人은 避妊普及 對象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15~44歲 有配偶 婦人중 家族計劃 要員의 家庭訪問에 의한 避妊普及 對象은 다음의 條件을 갖는 婦人으로 고려하였다.

1) 家族計劃 現實者로서 將來 避妊을 中斷 혹은 現 避妊方法을 變更하기를 希望하는 婦人 (7.8%, 98人).

2) 永久不妊婦人을 제외한 中斷者 (14.9%, 184人).

3) 永久不妊婦人을 제외한 未實踐者의 全婦人 (33.4%, 413人).

이렇게 하여 要員의 避妊普及 活動對象婦人은 基礎調查 對象婦人의 56.1%가 되는 695인이었다. 이들 各 婦人에 대한 追求카드 695枚가 既作成(기초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기재)되었고, 1974年 9月부터 3個月間 月 1回 家庭訪問에 의한 避妊普及 活動이 實施되었다. 이때 邑·面 家族計劃要員當 平均 擔當婦人數는 63인이었다.

피임보급 대상부인(15~44歲) 56.1% 중에서 원하는 避妊方法을 구체적으로 밝힌 婦人이 27.1%였고, 避妊을 원하되 避妊方法 미정인 부인이 29.0%였다.

避妊方法을 구체적으로 밝힌 婦人중 먹는避妊藥을 희망하는 부인이 13.5%, 루우프 希望婦人이 10.9%로 높았고 콘돔이 0.8%, 不妊手術이 1.3%, 기타 방법이 0.6%였다.

루우프 希望婦人數는 現實者, 中斷者, 未實踐者에 고루 分布되어 있고 특히 먹는 避妊藥사용 희망율은 未實踐者중 避妊希望婦人의 8.5%로 가장 높았다.

다. 邑·面 家族計劃要員의 家庭訪問

報恩郡의 11개 邑·面 家族計劃要員은 계획된 活動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要員 活動의 標準化를 위하여 現地에서 本院職員에 의한 要員活動 教育이 실시되고 月 1回 要員活動 結果가 확인되었다.

6) 宋建鏞, 韓聖鎭, 1973年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生力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74. 12, (內部資料).

7) 家族計劃研究院, 前揭書, p. 31, 表 6.

家族計劃要員의 실험지역내 月 家庭訪問數는 평균 2個里에 63家口로서 이들의 基本業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이 기간의 活動成果는 要員의 定期 事業實績報告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實驗期間의 要員活動은 正常的 業務의 一環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要員의 가정방문 결과는 그대로 既作成된 「家族計劃普及 追求카드」에 기록되었다. 이 카드는 가정방문이 지정된 婦人當 1枚씩 작성되었다.

3개월간 邑·面 家族計劃要員의 가정방문 活動이 종료된 후 각 要員의 확인서명이 된 追求카드가 모두 회수되었다.

本稿는 이 회수된 追求카드의 內容중 중요한 것만 手集計하여 基礎調查 結果와 比較分析한 結果를 수록한 것이다.

3. 家族計劃 實踐率

가. 避妊方法別 實踐率

1974年 9月부터 10월까지 3個月間 邑·面 家族計劃 要員의 家庭訪問에 의하여 避妊實踐率은 10% (15~44歲 婦人중)가 더 증가되었다.

基礎調查 結果에 의하면 報恩郡 標本地域 28개 調查區의 家族計劃 現實實踐率은 47%였고 中斷者가 16% 未實踐者가 21%였다.

現實實踐者 중 루우프 實踐率이 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먹는피임약의 10%였다.

Table 1. Comparison of Current Practicing Rates of Family Planning by Contraceptive Method Before and After Field Worker's Home Visits

Contraceptive Method	Home Visits		
	Before	After	Difference
Loop	21%	24%	3%
Oral Pill	10	14	4
Condom	5	7	2
Sterilization	3	4	1
Others	8	8	0
Current Users (Sub-total)	47	57	+10
Discontinuers	16	47	-10
Non-users	37		
Total	100(1,238)	100(1,238)	0

이것은 1973年 우리나라 農村의 15~44歲 有配偶婦人의 家族計劃 實踐率 34%⁸⁾보다 13%가 높은 수준이며, 특히 루우프의 實踐率은 1973年의 全國農村水準 10%⁹⁾보다 11% 수준이 높은 것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은군의 실험지역은 高陽郡 및 江華郡 調查對象 地域의 1974年 3月 現在 家族計劃實踐率¹⁰⁾ 35% 및 루우프의 11%보다 각각 12%와 10%가 높은 수준이다.

8) 宋建鏞, 韓聖鉉, 前揭書, 綜合報告 p. 135, 表 3-31.

9) 上揭書, 同面.

10) 金容完 外 6人, 家族計劃 普及方法, 示範事業. 1次 中間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5, p. 30.

그러므로 報恩郡의 家族計劃 現實踐率은 다른 農村地域보다 훨씬 높다. 특히 루우프와 먹는 피임약 使用率이 높다.

基礎調査에서 밝혀진 이러한 높은 家族計劃 實踐率에 영향을 준 要因은 앞으로의 보다 깊은 分析에서 밝혀지겠지만, 報恩郡은 어머니會 活動이 활발하고, 家族計劃事業의 실적이 우수한 지역(전국에서 1위를 한 적 있음)이었다.

基礎調査 以後 1974年 9月부터 11月까지 家族計劃要員의 家庭訪問에 의하여 現實踐率은(11月末 現在) 57%로 증가되었다.

避妊方法別로 實踐率을 보면 루우프가 24%로, 먹는避妊藥은 14%로 각각 늘어났다.

實踐者의 增加水準은 方法別로 먹는避妊藥이 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콘돔, 不妊手術의 順이었다.

報恩郡 標本地域의 家族計劃實踐率은 다른 지역의 그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 3個月간의 刺戟投與, 즉 家族計劃要員의 家庭訪問에 의한 避妊普及活動은 그 實踐水準을 더욱 上昇시키는 현저한 效果를 나타냈다.

특히 避妊方法別로 루우프의 높은 受容率은 주목할만 하다. 루우프는 1964년 이후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에서 避妊普及 중 가장 重點을 둔 方法이었고, 동시에 높은 中斷率과 副作用이 문제되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15~44歲 婦人의 24%, 전체 避妊實踐者의 약 절반이 루우프를 實踐하고 있다는 것은 루우프는 계속 農村地域에서 높은 人氣를 유지하며 보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家族計劃 要員의 적극적 活動 예컨대 각 가정에 대한 家庭訪問에 의해 앞으로 더욱 많은 루우프 보급이 가능함이 밝혀졌다. 1973년 전국 農村地域의 루우프 現使用率 10%와 報恩地域의 家族計劃要員 家庭訪問後 使用率 24% 간에는 14%의 차이가 있다.

먹는피임약, 콘돔, 不妊手術 등의 避妊方法에서도 역시 報恩地域이 전국 農村地域의 實踐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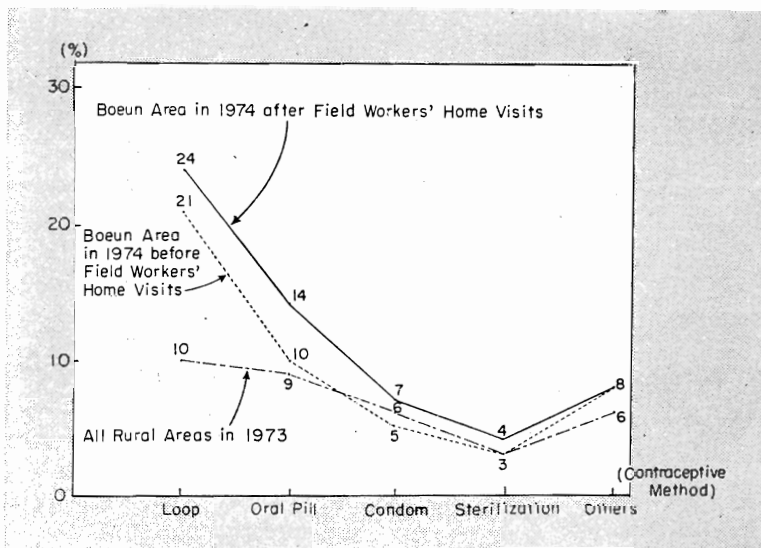


Figure 1. Comparison of Current Practicing Rates of Family Planning by Contraceptive Method between All Rural Areas and Boeun-gun in Korea.

보다 흔히 높다.

圖 1은 우리나라 農村의 1973년 家族計劃 實踐率과 報恩郡의 그것을 비교한 것이다.

전국 農村과 報恩郡의 方法別 實踐水準의 차이는 루우프와 먹는피임약에서 현격하며 그의 다른 方法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方法別 차이가 農村地域에서 家族計劃要員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메꾸어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 農村地域의 家族計劃 現實率은 男兒選好가 家族計劃 普及의 주요 장애가 된다는 理論과는 상관없이 현저히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의 家族計劃 실천율을 보면 先進國인 英國과 美國에서 1970년에 각각 74%와 65%를 示顯하였다.

영국의 경우 콘돔과 먹는피임약의 使用率이 43%로 전체 實踐婦人의 58%를 占하였고 性交中斷法도 14%로 적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먹는 피임약의 使用率이 25%로 가장 높았다. 영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콘돔은 8%에 불과하였다.

美國과 英國의 家族計劃 實踐水準인 65~74%는 1973年 우리나라의 전국 家族計劃 實踐水準 36%와 비교하여 29~38%나 높은 것이며 要員活動 이후 報恩郡의 實踐率 57%와 비교하더라도 8~17%가 높은 수준이다.

Table 2. Comparison of Family Planning Practicing Rates in Selected Foreign Countries and Korea

	Foreign (1970)*		Korea		
	England and Wales	U. S. A.	Whole** Country (1973)	Rural Area** (1973)	Boeun-gun (1974)
Total	100%	100%	100%	100%	100%
1. Not Fecund	7	8	11	11	11
2. Pregnant, Wanted Children and Planning Pregnancy	14	16	32	32	32
3. Total Women at Risk of Pregnancy	79	76	57	57	57
Loop	4	5	8	10	24
Oral Pill	19	25	8	9	14
Condom	24	8	7	6	7
Sterilization	4	9	5	3	4
Others	23	18	9	6	8
Users of Contraception	74	65	36	34	57
No Contraception	5	11	21	23	0

* Elise F. Jones,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U.S. and U.K. Compared", *Family Planning Perspective*, Vol. 6, No. 4, Spring 1974, p. 124.

** Kun Yong Song and Seung Hyun Han, 1973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Survey*, Comprehensive Report,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December 1973, p. 135.

避妊方法別로는 먹는피임약과 콘돔의 使用率이 영국과 미국에서 상당히 높으며 우리나라에서 使用率이 相對적으로 높은 루우프는 4~5%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性交中斷法의 實踐水準은 12%로 歐美에서의 傳統의 避妊方法의 人氣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避妊方法別 實踐率 階-턴의 차이는 그 나라의 傳統과 文化的 水準 그리고 政策的 配慮에 기인하여 變動되는 것이라 간주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全國水準은 루우프의 實踐率이 英美보다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方法에서 絶對적으로 實踐水準이 未達하고 있다.

그러나 報恩郡의 경우 全體 實踐水準은 英美에 미치지 못하나 루우프가 24%로, 英·美에서 가장 높은 使用率을 보인 콘돔과 먹는피임약의 24~25%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餘他方法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報恩郡의 家族計劃普及의 極大化 水準으로 간주되는 57%는 全國 家族計劃普及 最大 期待 上限線 57%(脚註 6 參照)를 달성한 것이다. 이것은 不妊, 妊娠中, 그리고 妊娠을 願하는 婦人(43%)을 제외한 全婦人에 걸쳐 피임이 普及된 것이다.

이러한 報恩郡의 결과는 全國적으로 避妊이 露出되어 있는 放任婦人(전국: 21%, 전국농촌: 23%)을 對象으로 一線要員의 避妊普及活動이 積極化되어야 한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그리고 避妊方法別로 英·美의 避妊實踐 패턴과는 關係없이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報恩郡의 實踐 패턴은 현실을 반영하여 方法別로 極大化된 避妊實踐 패턴이라 思料된다.

나. 婦人 年齡別 實踐率

報恩郡 調査對象 地域의 全體 避妊實施率이 이전의 어느 調査値보다 높은 水準에 있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年齡別 家族計劃 現實率은 要員의 活動 以前과 以後에 있어 共に 年齡增加에 따라 上昇하는

Table 3. Comparison of Current Practicing Rates of Family Planning by Age Group Before and After Field Worker's Home Visits

Age Group	Number of Women	Home Visits		
		Before	After	Difference
15-24	100% (165)	10%	24%	14%
25-29	100 (213)	27	37	10
30-34	100 (270)	52	64	12
35-39	100 (306)	66	75	9
40-44	100 (284)	57	64	7
All Ages	100(1,238)	47	57	10

경향을 보였다. 그중 35~39歲 年齡層이 要員活動 以前에는 66%, 活動以後에는 75%로 가장 높았고, 15~24歲 연령층은 活動以前이 10%, 이후가 24%로 가장 낮았다.

婦人の 家族計劃 實踐率은 低年齡層에서 낮고, 高年齡層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는 年齡別 實踐率의 屬性은 여러 研究結果에서 밝혀져 있다.

宋¹¹⁾, 金¹²⁾, 姜¹³⁾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宋 등의 연구에서 1973년 농촌의 實踐水準은 35~39歲에서 47%, 15~24歲에서 13%이며 이는 報恩郡의 實踐水準과 비교하여 각각 28%와 11%가 낮은 수준이다(圖 2 參照).

다른 두개의 연구결과에서도 35~39歲 年齡層의 家族計劃 實踐率이 50% 수준에 달하며, 15~24歲의 年齡層에서는 10%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11) 宋建鏞, 韓聖鉉, 前掲書. p. 135.

12) 金容完 外 6人, 前掲書. p. 33.

13) 姜南熙, 車正根, 白翎島 住民에 대한 家族計劃 및 醫療實態調査, 綜合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4. 12,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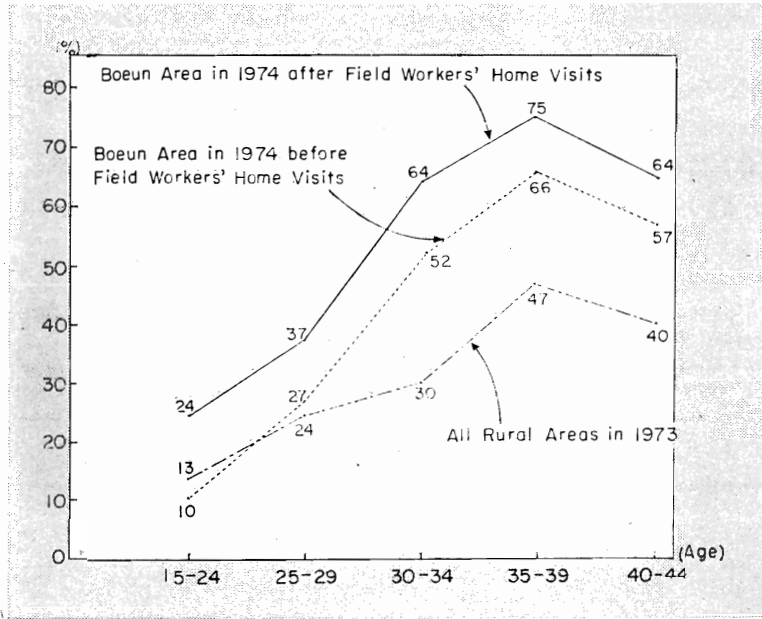


Figure 2. Comparison of Current Practicing Rates of Family Planning by Age Group between All Rural Areas and Boeun-gun in Korea

이렇게 家族計劃 實踐率은 年齡 增加에 따라 上昇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전국적인 것이며 家族計劃 目的의 대부분은 斷産을 의미하는 것이다.

報恩地域에서 계획적으로 家族計劃 要員의 家庭訪問 戟刺이 投與된 결과 避妊 實踐率의 증가에 가장 민감한 연령층은 젊은 부인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5~24歲에서 가장 높은 14%의 실천율 증가가 있었고, 다음은 30~34歲의 12%, 25~29歲의 10% 수준이었다.

이것은 그동안에 소홀하였던 低年齡層 要員들의 활동으로 적극적인 避妊 普及이 이루어지면 避妊 實踐率은 현저히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젊은 年齡層 婦人의 避妊 目的은 대부분 生育 調節일 것이다.

낮은 年齡層 婦人에 要員 活動이 소홀하였다는 사실은 ASI 마켓트 리써치 韓國支社의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 요원의 婦人 接觸 經驗率이 29歲 以下の 年齡層에서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으로도 立證되는 것이다.¹⁴⁾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낮은 年齡層에도 積極적이고 效率적인 要員의 避妊 普及 活動이 가해지면 (이 研究에서 要員 活動 方法은 家庭訪問에 의한 避妊 普及 活動이었음) 避妊 實踐率은 현저히 향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證明하는 것이며 동시에 宋¹⁵⁾ 등이 29歲 以下の 婦人에게 重點을 둔 避妊 普及의 強化를 지적한 建議 內容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14) ASI Market Research Inc. (Korea), *op. cit.*, p. 77.

15) 宋建鏞, 韓聖鉉, 前揭書, p. 250에서 가족계획 보급의 重點은 29歲 以下の 婦人에게 두어 피임의 구체적 사용방법의 습득과 성공적 피임실천을 위한 피임보급은 婦人 年齡 29歲 以下에서 完託토록 계몽·교육과 피임보급의 범위가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의 建議 內容에서 지적하고 있다.

4. 家族計劃 非實踐 理由

家族計劃 非實踐者는 基礎調查 결과 53%(中斷者와 未實踐者의 合計)이던 것이 要員의 避妊普及 活動 이후 43%로 감소되었다.

婦人 年齡別 非實踐者 分布는 전반적으로 젊은 年齡層에서 많은 非實踐 水準을 示顯하고 있다. 특히 追加子女를 원하는 이유 또는 妊娠중인 이유로 避妊을 實踐치 않고 있는 婦人은 낮은 연령층에서 많다.

Table 4. Percent Distribution of Reasons for Non-used Contraception by Age Group after Home Visits

Age Group	Reasons for Non-used Contraception				Total
	Wanted more Children and Planning Pregnancy	Pregnant	Lactation, Postpartum amenorrhea and Not Fecund	Others	
15-24	31%	20%	21%	4%	76%
25-29	21	16	20	6	63
30-34	13	7	14	2	36
35-39	5	3	12	5	25
40-44	3	—	32	1	36
All Ages	13	8	20	2	43

그리고 出産直後, 産後無月經 및 自然不妊으로 묶여진 部分의 階層에서는 低年齡層과 高年齡層에서 非實踐 婦人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資料處理 이후의 깊은 分析에 의해 밝혀질 것이나 非實踐理由의 대부분은 낮은 연령층에서는 出産直後 또는 産後無月經 그리고 高年齡層에서는 自然不妊이었다.

非實踐 理由別 分布는 追加子女를 원하는 婦人에서 13%, 妊娠중인 婦人에서 8%, 出産直後 및 自然不妊婦人에서 20%를 보였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29歲以下 年齡層 婦人의 相當數가 家族計劃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追加子女를 원하거나 妊娠중 또는 出産直後의 상태에 있어 避妊을 할 필요가 없거나 피임을 실천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婦人들, 즉 子女를 더 원하는 婦人 또는 出産直後 및 妊娠중에 있는 婦人, 産後無月經인 婦人 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要員들의 追求 및 避妊普及 活動이 展開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9歲以下の 婦人들에게 避妊普及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要員活動에 의해서 家族計劃 事業은 더욱 效果의으로 進行될 수 있는 것이다.

家族計劃要員의 家庭訪問이후에도 계속 家族計劃 未實踐者의 未實踐 理由는 婦人年齡別로 각기 다르고, 또한 현재로서 解決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妊娠과 出産에 기인된 未實踐者에게는 適時에 신속히 避妊을 普及하고 避妊을 成功的으로 實踐하도록 도와줌으로써 現 未實踐理由가 反覆의으로 未實踐 理由가 되는 것을 防止할 수 있다. 子女를 더 원하는 婦人에게는 希望子女規模의 縮小를 위한 啓蒙教育을 強化함으로써 이 理由로 한 未實踐率은 減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現 未實踐者의 큰 部分 특히 30歲以下 젊은 婦人의 未實踐理由는 解消되고 避妊實踐率은 많이 增加될 수 있을 것이다.

5. 要員 訪問回數別 家族計劃을 받아들인 實踐 婦人數

3個月間(1974年 9~11月) 月 1回 家族計劃要員의 家庭訪問에 의하여 家族計劃 普及率은 현저히 증가되었다. 특히 要員의 1回 訪問에 의하여 避妊을 받아들인 婦人이 71.5%로 가장 높았다. 1回 訪問에 의하여 家族計劃을 받아들인 婦人 中에는 基礎調査의 終了와 追求活動의 着手 間에

Table 5. New Family Planning Acceptors after Field Worker's Home Visits by Family Planning Status before Home Visits and Number of Home Visits

Number of Visits	Family Planning Status before Home Visits			
	Current Users*	Discontinuers	Non-Users	Total
1 Time	86.3%	71.8%	58.0%	71.5%
2 Times	9.6	13.4	18.5	14.0
3 Times	4.1	14.9	23.4	14.5
Total	100.0(73)	100.0(67)	100.0(81)	100.0(221)

* Current Users, but wanting change of contraceptive methods before home visits.

약 2개월의 간격이 있었으며 그 사이에 避妊方法을 이미 받아들여 既實踐하고 있는 婦人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은 極少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家族計劃要員의 家庭訪問에 의하여 家族計劃을 받아들인 婦人이 2次訪問以後 28.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1次 訪問에서 家族計劃을 받아들이고 있다.

1973年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生力 調査 結果에 의하면 1972~73年 2年間に 家族計劃 要員의 家庭訪問을 받은적이 있었던 婦人이 都市에서 20%였고 農村에서 37%에 불과한 실정이다.¹⁶⁾

한편 金의 研究¹⁷⁾에서 아직도 農村地域의 家族計劃 對象婦人들은 家族計劃의 選擇에 있어 自意에 의한 것 보다 家族計劃要員이나 그 외 이웃 혹은 親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指摘하고 있다.

邊의 調査結果¹⁸⁾에 의하면 家族計劃에 대한 知識 및 知悉經路가 家族計劃要員을 통해서가 40~50%이었고 親知 및 기타가 30%정도, 家族計劃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가 20~30%였다. 또 要員으로부터 避妊勸誘를 받은 적이 있는 婦人중 避妊을 實踐하지 않고 있는 婦人의 比率이 35%나 된다.

ASI 마켓트 리서치 韓國支社의 1972年 調査結果¹⁹⁾에 의하면 最近 2年間 避妊普及 對象婦人 中 要員을 접촉한 經驗이 있는 부인이 불과 30%정도인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報恩郡의 경우 아직 資料處理 중이므로 구체적인 分析은 불가능한 것이나 이상의 研究結果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家族計劃要員이 對象婦人을 광범하게 접촉하여 避妊普及을 하는 활동이 적극성을 띠지 못하였고 要員活動上의 미흡점이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짐작되는 것이다. 그것은 要員의 避妊普及及活動이 避妊實踐率을 상승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내용에서 보는 점이다.

물론 그동안 要員活動이 부진했던 이유중 要員의 退職率이 높고 그들의 年齡分布가 未婚의 낮은 年齡層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²⁰⁾

16) 上揭書, (內部資料)

17) 金容完 外 6人, 前揭書, p. 24.

18) 邊時敏 外 3人, 前揭書, p. 19.

19) ASI Market Research Inc. (Korea), *op. cit.*, p. 77.

1974年 우리나라 家族計劃要員의 年齡別 分布는 20~24歲에서 45%를 占하고 있고, 이중 未婚 婦人이 대부분이며 年 要員의 退職率은 무려 38%나 되고 있는 것이다.²¹⁾

이 사실은 報恩郡의 경우에도 많은 婦人들이 家族計劃要員을 그동안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婦人이 많았다는 內容을 아울러 짐작케 하는 것이다.

6. 要約 및 結論

1974年 5~6月 기간에 忠北 報恩郡 全家口의 1/10인 1,782家口의 15~44歲 有配偶婦人 1,238名을 對象으로한 家族計劃實態 基礎調査가 실시 되었다. 이 基礎調査에 따라 家族計劃普及이 要求되는 婦人別로 追求카드가 作成되었고, 해당婦人에 대한 계획된 家庭訪問(月 1回, 3個月間)이 그 地域 담당 邑·面 家族計劃 要員에 의하여 實施되었다.

다음은 邑·面 家族計劃要員의 家庭訪問에 의한 家族計劃 現實踐率의 變化를 要約한 것이다.

1) 報恩郡 調査對象地域의 基礎調査時 避妊實踐率은 15~44歲 有配偶婦人의 47%였고 要員의 家庭訪問에 의한 3個月間 避妊普及活動에 의하여 現實踐率은 10% 水準이 上昇하였다. 따라서 家族計劃 實踐率을 57%까지 向上시킬 수 있었다. 이는 당초 基礎調査 結果에 의해서 推定했던 最大期待上限線 60% 수준에는 미달하는 것이나 거기에 상당히 접근하는 수준이다.

2) 특히 루우프의 實踐率은 基礎調査時 21%에서 要員活動 이후에는 24%로 이전의 어느 調査 結果值보다 높은 수준을 示顯하였고, 農村地域의 루우프需要는 여전히 높았다.

3) 要員의 家庭訪問에 의한 避妊普及活動이 避妊實踐率을 현저히 上昇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內容에서 종래의 要員活動이 積極性을 띠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4) 年齡別 家族計劃 實踐率은 年齡增加에 따라 上昇하는 傾向을 보였고, 35~39歲의 年齡層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15~24歲의 年齡層에서 가장 낮은 實踐水準을 나타냈다.

그러나 要員의 避妊普及 活動에 의하여 젊은 年齡層에서 新規로 避妊을 받아들인 比率은 높았다. 이는 要員의 積極적이고 効率的인 避妊普及 活動에 의해서 低年齡層에도 避妊實踐率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示唆하는 것이다.

5) 家族計劃 非實踐者는 基礎調査에 53%이던 것이 要員活動 이후 實踐率이 上昇함에 따라 43%로 減少되었다.

6) 婦人의 年齡別 非實踐者 分布는 低年齡層에서 높은 非實踐 水準을 나타냈고, 이들 중 특히 追加子女를 원하거나 妊娠中 혹은 出產直後의 婦人들이 많았다.

7) 3個月間 要員의 家庭訪問中 1回 家庭訪問에 의한 避妊受容率이 높았다. 대부분(72%)의 婦人들이 要員의 1回 訪問에 의해서 避妊方法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要員活動의 취약성을 示唆하는 것이다.

20) M. C. Chen and Albert I. Hermalin, *op. cit.*, p. 17에서 臺灣의 경우 35~39歲 연령층의 또 미혼은 원보다는 기혼요원의 IUD 普及成果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1) 家族計劃 研究院, 訓練關係 內部資料(指導課 所管).

<Abstract>

Impacts of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Home Visits on Acceptance of Family Planning in Korean Rural Areas

by Young Hoon Lee*

The data

A baseline survey wa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May-June 1974 using a respondent pool of 1,238 currently married women, aged 15 through 44, living in 1,786 households. A ten percent household sample was drawn at random from a universe of a rural administrative unit, Boeun-gun (county level), Choongbuk Province.

The survey showed the expected maximum level of family planning acceptance was 60 percent of the respondents; 47 percent current users and 13 percent expressing a desire for family planning.

A family planning follow-up card was made on each unmet case and home visits were conducted by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once a month for the period of September-November 1974. The data was from the family planning follow-up cards recorded by the field workers.

Main findings

1. A 10 percentage point increase of the current family planning practicing rate was made by the planned activities of fieldworkers. The rate reached 57 percent, approximately the expected maximum acceptance level of 60 percent.

2. After the fieldworkers' home visits, the highest acceptance rate was for the loop from among the several contraceptive methods. Loop users constituted 24 percent (a 3 percentage point increase) for currently married women aged 15-44. There is still a great unmet need for the loop in rural areas.

3. The current practicing rate was greatly increased in younger age groups: 24 percent from 10 percent for the 15-24 age group, 37 percent from 27 percent for the 25-29 age group and 75 percent from 66 percent for the 35-39 age group.

4. Some non-practicing women had reasons for not practicing contraception such as wanted pregnancy, currently pregnant, postpartum amenorrhoea and sterility which were beyond the family planning fieldworkers' home visits.

5. Seventy-two percent of the 10 percentage point increase was the result of first home visits. A large increase in family planning acceptance in rural areas will be expected through more active fieldwork such as home visits.

* Researcher, KIFP